

## 새해의 동이 트다.

새해—— 1981년도의 동이 터 온다.

새해 첫달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올해에는 지나간 해들과는 달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리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의"라는 수식어를 막연하게 붙여 본다.

그러나 "희망의 새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영어로 1월을 January 라고 하나니, 이는 곧 Janus 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 Janus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양면을 응시하는 신인데, 그 바라보는 방향이 정반대이다. 즉 일두 양면(— 兩面)이 응시하는 방향이 한 눈은 과거 쪽이요 또 다른 눈은 미래 쪽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하여는 과거를 자세하게 되돌아 보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장단점에 대한 바른 평가가 없고서야 미래의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January 는 과거를 겸손하게 비판하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달인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협회가 설립된 해가 1973년이니 이제 햇수로 따져 9년 가까이 이르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길다면 길다고 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 자랑스럽게 말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것이 자화자찬에 그쳐서는 곤란하겠다. 방재나 보험 업무면에서 이바지한 바 컸다고 하나 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비판을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비판적인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그 원인을 평가 분석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우리 업무 자체의 본질조차도 제대로 규명 정립해 놓지 못한 실정인 아닌가? 이를 들어 우리는 Pool 제도의 장점, 외국적 사회보장제도 실패, 방재 업무의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누구누구 또는 어느 부서에 있다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화재 보험 협회"라는 공동 운명체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겸허한 자세로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하겠다.

새해의 동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여건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요구한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희망"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부하되어 있다. 특히 방재 업무 분야에는 소방법의 개정이라든가 방재 연구소와 같은 난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 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때보다도 더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은 결코 "강 건너 불"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